전북특별법 교육특례 실행방안 마련

전북자치도교육청, 특별법 오늘 시행 따라… 자율학교 운영 특례 등 4개 담겨, 추가 발굴 5개 안 제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 27일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특례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특별법에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 유학 등이 담겼다. 특히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례, 시행령, 지침 등 세부 실행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26일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단회를 갖고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정 △유치원 방과후 길라잡이 개정 △유치원 급식시설·설비 세부 기준 마련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규칙 마련 △원격교육 운영 기준 및 인프라 지침 마련 △학교발전기금 관련 지침 개정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개정 등의 실행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특례 추가 발굴을 위한 4개 시도교육청 간 교육자치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향후 사업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해 추가로 23건의 교육특례를 발굴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채용 특례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학교 직위별 교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등 5개 안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특례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중앙부처를 방문해 교육특례 필요성을 설명하고, 또 지역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전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담당자 연수와 부서간 협의를 통해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26일 비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전주고등학교와 업무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상호 협력

전주비전대-전주고,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26일 비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전주고등학교와 업무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비전대학교 우병훈 총장, 전주고등학교 라구한 교장, 소정원 교무부장, 한미희 교육과정부장, 임하진 교육활동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전주비전대학교 시설 및 전문 인력 △교육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전주고등학교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강화 활동 및 진로 탐색 지원 △학생들의 학문적 지식과 관심을 증진하고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전문가 특강 △온·오프라인을 통한 멘토-멘티 지원 △학생 교류를 통한 교육 봉사활동 지원 △기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병훈 총장은 "전주고등학교와 협약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구한 교장은 "전주비전대학교와의 협약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에 큰 힘이 된다"며 "동아리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해 문제해결능력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내년 1월 13일부터 새내기 학력돋움 예비학기제

전북대학교가 새내기 학력돋움 예비학기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예비 신입생에게 이공계 기초과목인 수학과 물리, 화학 등을 교육해 입학 후 학사과정을 이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6주간이며, 과목당 주 3회씩 하루 3시간, 총 45시간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1월 6~8일 전북대학교 홈페이지(www.jbnu.ac.kr)를 통해 최대 2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된다.

전북대학교 심재우 교육혁신처장은 "새내기 학력돋움 예비학기제를 통해 신입생들이 대학 학업 수용능력을 키우고, 학문적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5층 회의실에서 '제3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전북교육 발전 위한 교육협력 '구심점'

제3기 전북자치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출범… 총 40명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5층 회의실에서 '제3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3기 위원은 당연직 3명, 전북특별자치도청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위원 5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추천 위원 3명, 공개모집 위원 11명, 민간단체 위촉위원 18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 임기는 2026년 10월 31일까지다.

이날 행사는 공개모집 위원 등 외부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운영위원 등 임원진 선출,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운영 계획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025년 전북교육청의 주요 정책 방향과 역점사업 등을 소개하고, 전북교육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전체위원이 참여하는 정기회의,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교육의제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의, 운영위원회, 분과별 회의 등으로 운영된다.

위원회에서는 △지역갈등 해소, 조정·중재 등 교육공동체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 △지역 연계 교육사업, 민·관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개선,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민간단체와 연계한 교육협력에 대한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정현 위원장은 "전북의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본연의 목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거버넌스위원회 활동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발전의 구심점이 되길 희망하며, 거버넌스위원회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도내 중등학교 교사 등 임용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공립 531명 · 사립 500명… 내년 1월 실기 · 제2차 시험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누리집을 통해 202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립은 531명, 사립은 500명 등 모두 1,031명이다.

먼저, 공립은 372명(일반 339명, 장애 33명) 선발 예정에 총 531명(일반 529명, 장애 2명)이 합격했다. 합격자는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로 결정했으며,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했다.

이어 사립은 207명(49법인 34과목) 선발 예정에 총 500명이 합격했다.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사립 단독지원자가 우선이며, 공·사립 동시지원이 가능한 22개 학교법인은 공·사립 동시지원자(공립 합격자 제외) 중 미달된 수 만큼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됐다.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했다.

성적은 내년 1월 10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에서 본인 인증 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제1차 시험 공립 합격자는 오는 27일과 30일 2일간 관련 서류 등을 전북교육청 창조나래 2층 1회의실로 제출해야 하며, 본인 방문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위임장) 및 비대면(등기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제2차 시험은 내년 1월 15일 실기평가, 1월 21일 수업실연, 1월 22일 심층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 11일 전북교육청 누리집(www.jbe.go.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재학생 2명 공인중개사 동차 합격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재학생 2명이 2024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동차 합격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은 제1차 시험 응시자 9만8,483명 중 단 15%만 합격했고, 제2차 시험은 응시자 49,521명 중 31%가 최종 합격했다. 동차 합격은 1차와 2차 시험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16명의 재학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위한 정기적인 동아리 스터디 모임과 맞춤형 특강 등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꾸준한 합격자를 배출해왔다.

또한 현장 전문가 특강, 현장 견학,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합격한 김원식 학생은 "학과의 교육과정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며 "맞춤형 특강과 스터디 모임은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됐고, 전공 수업과 자격증 시험 간의 연계성은 큰 힘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동산국토정보학과 임미화 교수는 "우리 학과는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실제 진로 개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체계적인 커리큘럼뿐 아니라, 현장 견학 및 실습과 실무 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대 국토부동산정보학과는 30여 년 전통의 호남지역에 유일한 4년제 부동산 관련 학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과의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올 한해 전북 문화예술 '3대 키워드'

예술의 확산 · 사람의 성장 · 지역의 변화

도내 예술인 창작 지원 · 문화예술교육 통한 도민 주체성 증진 등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올 한 해 도민들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을 위한 12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재단 문화예술본부에서 선정한 3가지 키워드 △예술의 확산, △사람의 성장, △지역의 변화를 통해 2024년도 주요성과를 살펴봤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을 비롯한 예술인(단체)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지원체계의 변화, 예술인 권익보호 강화, 청년예술인 지원강화 등 8개 단기과제를 개선했다.

특히 '젊은예술 50'으로 도내 젊은 예술가 50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문화예술 주문배달'으로 청년 예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했다. 도내 청년예술가 87명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마련뿐만 아니라, 평소 문화예술이 접하기 어려운 문화향유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공연을 제공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사업을 비롯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하고, 56개 운영단체에 약 32,000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적 역량 향상과 주체적 성장,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본부 통합 성과공유회.
〈사진=전북문화관광재단 제공〉

또한 '경계와 차별없는 문화예술'이란 슬로건 아래 장애인들의 예술활동과 참여를 장려하는 사업을 기관 및 시설에 직접 방문과 소규모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도내 소외계층의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문화누리카드)에 올해 도민 13만8,777명이 수혜를 받았다. 카드 발급율은 전년대비 3.6% 상승한 100.5%, 카드 이용률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이용률 3위(87.8%)를 기록하며 문화향유의 지역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올해 초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도내 문화환경취약지역 10개 시·군에서 1,640명의 예술인이 82회의 문화행사를 진행, 약 1만3,000명의 수혜자가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문화예술본부 통합 성과공유회에서 한 예술인은 "재단이 2023년부터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큰 기대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더욱 많은 성과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나아가, 향후에는 더 큰 공간에서 더 많은 이들과 성과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올 한 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예술현장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해 왔다"며 "2025년에도 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 문화예술본부 성과공유회'는 오는 30일까지 재단 3층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도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jbct.or.kr)과 창작지원팀(063-230-7441) 및 교육문화팀(063-230-745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구축,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

전북교육청 추진… 전국 시도교육청 제출사례 중 10건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2024년 하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등급을 차지했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고자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총 10건을 선정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의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통학차량 관리에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대국민서비스 모바일앱 개발로 통학차량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실시간 통학차량 위치 관제 및 탑승 학생에 대한 승하차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학차량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단위 학교 현장에서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해 통학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그동안 전북교육청 모든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고, 도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행정서비스를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통문화전당, 한국공예 장인학교 결과물 전시회

공예 장인들에게 도제식 수업을 통해 전수받은 교육생들의 실력을 뽐내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31일까지 '2024 한국공예 장인학교' 결과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26일 전당에 따르면 한국공예 장인학교는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26주에 걸쳐 △단선 △목조각 △색지 △지승 △매듭 등 5과목을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50명 정원으로 진행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초반 21명, 심화반 21명 모두 42명의 수료 및 졸업생 작품과 교수 5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교육 강사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0호 선자장(단선) 방화선 △제58호 목조각장 김종연 △제60호 색지장 김혜미자 △제61호 지승장 김선애 △제66호 매듭장 김선자 장인이 참여해 공예기술과 기법을 전수했다. /장은성 기자